이론이야기.

책 제목 :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

이대훈 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편

다음은 위 책의 30페이지~44페이지 내용입니다.

**-서로 배움의 가능성 : 페다고지-**

 페다고지는 배움을 만들어가는 방식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모모[[1]](#footnote-1)가 페다고지를 통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서 종종 번역되는 것처럼 ‘교수방법론’이 아닙니다. 평화교육에서 페다고지를 탐구하는 이유는 전통적 지식전달형 교육이 평화의 가능성과 힘(empowerment)을 만들어내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페다고지를 ‘교수방법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기존의 전통적, 지식전달형 교육이 통제와 규율, 또는 지식의 우열구분과 정답 집착증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강조하자면 서로 배움에서 페다고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학습자가 새로운 배움을 찾고 취하는 힘(power)을 어떻게 찾아내는가가 서로 배움에 있어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움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참여, 말하기, 듣기, 터치, 느끼기, 공감하기, 팀워크 등의 모든 활동은 이런 힘을 찾아내는 것과 기르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평화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교사/진행자에게 권력을 덜 주고 학습자가 권력을 회복하고 그 힘을 길러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폭력 현상과 구조는 학습자의 힘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억압하는 일과 관련된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폭력(暴力)의 의미 자체가 ‘힘을 거칠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들이 힘을 거칠게 사용하는 경우들일까요?

 힘을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자에게 마구 대하는 경우는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목격됩니다. 언어 폭력, 폭행, 전쟁, 차별, 억압, 노예화, 가부장제 모두 이런 힘의 관계 면에 매우 비슷하지요. 그러므로 폭력의 출발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형성되는 권력의 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권력의 사다리는 폭력의 구조와 이처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폭력들이 개별적 사건을 넘어서서 반복적 특징을 갖는 것이라면 이는 구조화되었다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사회의 권력구조가 개인들에게 내면화되고 일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일상에서 힘이 폭력으로 행사되는 사건은 그 사이에 매우 긴밀한 구조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폭력이 구조화되는 첫번째 단계는 일상생활의 언어와 위계적 관계 맺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상의 언어와 관계 맺기의 경험은 주류 권력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입되고 훈육됩니다. 성인사회의 일상 담론도 그러한 미디어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자극적인 이미지들로 가득찬 대중매체와 ‘그렇다더라’는 카더라 통신이 담지하고 있는 폭력성은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스며들어버리는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미디어는 특히 압도적으로 시각적 매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을 훈육시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략)

 독일 태생의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전범재판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처형한 나치 장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지극히 성실하고 합리적이었고 착해보였기 때문입니다.

 전후 재판을 받고 교수대에서 삶을 마감한 아이히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행한 폭력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아이히만의 양심 세계는 당위, 의무, 명령,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표준과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평소에 늘 성실했고 좋은 가장이었고 평범한 군인이었기에 주어진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실제로 아이히만은 시간과 명령, 성실한 수행에 관해서는 매우 높은 자각 능력과 실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로서 수행되고 있는 잔혹한 ‘폭력’에 대해서는 일말의 자각 능력도 없었습니다. 항상 주어진 일을 수행했을 뿐이지요. 또한 그 과정에서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자신에게도 닥쳐왔을지 모르는 끔찍한 폭력을 자행했던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폭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히만의 평범하고도 착한 모습의 이면에서 아렌트는 폭력의 탄생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매우 제한된 단순한 단어들만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언어는 매우 단순했고 종종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렌트는 이 언어적 무능이 곧 생각의 무능이라는 것을 간파했고, 이로부터 타인의 입장에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언어가 단순한 사유로, 단순한 사유가 타인에 대한 지각의 불능으로 이어지는 ‘악의 평범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파악했듯이 폭력은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사유없음은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표준의 지배는 곧 정답의 지배와 통하며 표준화된 질서와 위계에 따른 지시와 복종은 일상에서의 사유 없음을 낳습니다. 사유 없음은 획일적인 것을 편안하고 평화로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획일적이지 않은 것들을 배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이 배제에 대한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획일성, 즉 표준의 지배는 이렇게 이분법을 정당화합니다. 표준과 비표준, 정상과 비정상, 질서와 무질서와 같은 흑백론적 이분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야, 아니야?’,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와 같은 이분법에서 볼 수 있듯, 적극적인 폭력적 권력의 정당화에는 항상 이분법적 사유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과 같은 위계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가 주류의 사고방식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유는 매력적입니다. 복잡한 것을 쉽게 단순화시키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도 되므로 집단의 에너지를 빠른 시간 내에 동원해 단단한 결속력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을 멈추는 데는 별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음은 안락해서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 나라 놈들은 다 그래’ ‘O씨 성을 쓰는 것들은 다 그래, 피는 못속여’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생각하지 않음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분법 사유와 언어는 그 단순함이 강점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사회는 ‘모 아니면 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래서 결국? 결론만 말해’, ‘선생님, 복잡한 토론 말고요 정답을 먼저 말씀해주세요’처럼 결정론에 집착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배움에서는 이분법적 사유를 우리와 타자 관계의 단순화, 즉 구조적 폭력의 시작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평화 배움에서는 이분법에 대한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이분법의 사유, 단순한 언어와 사유없음이 주류의 문화 속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페다고지가 변화를 가능하게 할까요?

**-몸의 페다고지-**

몸을 통한 창조적 활동은 대상을 낳고, 관찰을 낳고, 거리를 낳습니다. 이 거리는 아하의 순간, 상승하는 배움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 거리가 일상화된 권력구조로부터의 일시적인 이탈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류의 교육은 똑같이, 나란히, 줄맞춰서, 바르게, 정답을 찾아가게 만든다면 그 속에서 몸은 똑바로, 나란히, 가만히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억압의 세계에서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여성의 몸에 대한 온갖 통제와 아이들의 몸에 대한 온갖 통제, ‘아랫 것들, 어린 것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온갖 통제, 노예의 몸에 대한 통제, 불가촉천민들에 대한 배제와 통제, 교도소내 죄수에 대한 몸의 통제는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몸은 통제됨과 동시에 쉽게 동질화되지 않고 쉽게 훈육되지 않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서운 선생님의 호령에도 틈을 타서 장난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통제 권력의 빈번한 실패를 목격할 수 있듯, 권위주의 교육이 아이들의 몸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가부장제 권력이 여성의 몸과 행동을 통제하는데 갖은 애를 다 써도 사람의 몸의 다채로움과 자유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바로 이 실패에서, 몸의 페다고지 가능성이 반짝입니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을 몸을 변화시키는 연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와 차별, 그리고 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평화의 힘[[2]](#footnote-2)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배움에 몸의 움직임을 도입하면 무척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한 사람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강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아니라 몸 활동은 그 자체로 재미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는 몸에 대한 통제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 주는 쾌감이 배움 공동체에 굉장한 활력을 선사합니다. 몸 활동은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자신의 느낌과 연결지어 성찰하기에도 좋습니다.

 ‘몸짓’ 속에는 동작뿐만 아니라 몸과 언어, 몸과 사회, 몸과 권력등이 한꺼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몸짓은 그것들의 종합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몸짓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많은 언어, 사회, 권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감각과 감수성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평소와 다른 몸짓을 해본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회성, 새로운 관계를 시도해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 활동은 활동 그 자체의 재미를 넘어서서 몸 활동의 페다고지는 간접 체험, 직접 체험, 현실의 재현과 재창조, 가시화, 복합적 의사소통, 공동체 형성, 역할 놀이, 공간속의 배움 등 여러 배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몸을 통한 창조적 활동은 대상을 낳고, 관찰을 낳고, 거리를 낳습니다. 몸을 통한 창조적 활동은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생명과 생명을 연결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몸 활동은 고유성을 가지게 되어 고유한 존재들이 고유하게 연계되고 특별하며 역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현실과 관계가 고유하게 변형되는 특이한, 역동적 과정을 만들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많고 다양한, 새로운 해석들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몸 활동은 그 순간, 그 곳만의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몸을 통한 창조적 페다고지는 동적 과정과 변화가 가지는 가변성을 여러 감각을 통해 드러내며 창조적 활동은 몸과 정신, 감각을 모두 활용하여 연계적인 사유를 촉진합니다. 비문자 언어와 추상화된 소통, 상상력이 우선시되면서 고정된 문자 중심 언어를 흔들리게,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생각과 감각을 문화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배움을 ‘이성적으로만’ 성취하려는 ‘이성의 지배’를 버리게 합니다.

 몸 활동은 또한 노동이기도 합니다. 여럿의 몸짓은 각자의 뚜렷한 노동과 협상을 필요로 하지요. ‘노동(勞動)’은 힘들여 움직인다는 뜻이므로, 두뇌활동에 집중하는 관념적 작용과 달리 여럿의 몸짓 활동은 ‘노동’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럿의 몸짓에는 ‘힘을 들여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의 의미가 담겨지고 노동을 포함하는 창조적 활동은 생산-생명-체제의 맥락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창조적 활동은 변형과 그 순간/그 곳만의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문자언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가 드러나면서 추상화된 소통과 상상력이 중요해지고 그 결과 고정된 문자언어의 불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주류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요.

 몸 활동을 통한 재현은,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지척의 관계,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억압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이를 어떻게 형상화하면 더 잘 대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연희적 페다고지에서 꽤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연극 페다고지와 변화의 가능성-**

몸에 이야기가 더해지면 연극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사람이 몸과 마음과 언어를 담아 이야기를 구현하면 연극이 됩니다. 이를 같이 보고 느끼고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연극 페다고지가 됩니다. 연극 페다고지의 배움의 과정에 있게 되면 정말로 많은 관찰과 연상이 생기고, 그래서 깊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몸 활동은 사회와 나의 표현이자 변형이면서 동시에 노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와 경험 속에 들어가 무엇을 힘을 들여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의 과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노동이 타인을 위한 것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종속된 성격이라면, 배움의 과정에서의 몸 활동은 오히려 현실의 제약에서 해방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럿의 몸짓은 노동과 협상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이 노동과 협상에서는, 여럿의 몸짓을 통해 이 순간/이 곳만의 특성을 만들고 변형해보고 성찰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작용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몸짓-성찰-재성찰을 해보는 과정은 그야말로 연희적인 과정입니다. 연극하기, 춤추기, 놀이 등과 매우 가까운 것이지요.

 연극, 마임, 춤과 같은 여럿의 노동과 문화예술적 표현물은 토론하는 과정이나 결과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적 행위는 현실의 일정한 재현과 변형을 담고 있어서, 변화를 지향하는 배움과 매우 친근하기도 하고요.

억압과 찰나

자신없음, 소심함 등은 본래의 성격일까, 억압의 산물일까?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지척의, 은근한 억압은 없었을까?

있다면 어떻게 형상화하여 대면할 수 있을까?

공허함, 두려움, 거부감 등과 보이지 않은 억압은 어떤 관계일까?

 ‘폭력과 억압의 일상성, 악의 평범성’을 생각할 때, 우리 ‘몸 속의 경찰, 마음속의 경찰[[3]](#footnote-3)’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라도 억압의 구조와 문화가 촘촘하게 일상속으로 스며들었다 하더라도 일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매 순간 역동적 변화의 가능성이 숨어있다면, 그 미시적이고 내면적인 찰나에서 거대한 변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찾아질까요?

 세계적인 연극가-이론가 아우구스토 보알은 부부, 가족, 이웃, 학교, 사무실, 공장, 일상의 작은 사건들과 같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들은 모두 그 사회의 주류 권력과 지배를 반영하고 또 그 억압의 기제(메커니즘mechanism)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신 없음, 자괴괌, 열등감, 노이로제, 히스테리 등은 자기 탓이 아닙니다. 무언가의 표현이며 무언가를 향한 표현이지요. 가장 드러내기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종류의 욕구들이 그 모든 분츨의 가능성으로부터 봉쇄되었을 때 혐오와 분노의 폭력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근래 대한민국에서 한층 더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우그스토 보알의 연극적 페다고지는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억압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것과 하나의 억압의 경험, 그 사건을 몸짓으로 가져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몸과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때 그 사람과 이 사람의 몸짓을 보고 재현하고 변형하는 연극적 동료들은, 예술의 관객이 아니라 예술가로 변모하며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 억압을 경험하고 그를 기반으로 나와 사회, 현실의 변형을 예술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극은 인간이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을 보다가 그 자리에 있는 자신과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태어난다.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인간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인간이 무엇이 아닌가를 찾아내며, 그리고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상상한다.

또한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지 않은가를 깨달으며, 어디로 갈 수 있을까를 상상한다.

그리하여 관찰하는 나, 그 자리에 있는 나,

나 아닌 나(타자)의 세가지 요소가 생겨난다.

자기를 관찰하는 인간 속에 연극의 본질이 자리한다.

인간은 연극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연극이기도 하다.

연극을 발명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

-아우그스토 보알-

 민초들의 문화에 담겨있던 풍자와 해학, 이는 세계의 다양한 민속 문화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피억압자의 창조성입니다. 이것은 곧 저항의 표현으로서 억압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권력,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몸의 자유 앞에서 실패하는 권력의 틈새를 꼬집고 비트는 것입니다.

 연극과 같은 재현 활동은 무대와 연희를 만들어내고, 고매한 교육 주제나 거대한 목표 따위와 달리 희비, 미, 쾌를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하는데, 이러한 미적 공간은 기억과 상상을 해방시키고 과거-미래를 소통시킵니다. 즉, 과거와 미래, 두개의 현실을 보고 동시에 새로운 두 개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1. ‘모모’는 수평적 서로배움을 통해 실천적 사유의 시민공동체를 확장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덜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평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화교육기관. 모모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peacemomo.org/> [↑](#footnote-ref-1)
2. ‘모모’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힘을 길러내는 과정을 목표로 평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모모’에서는 직접적 폭력(물리적 폭력과 같은 폭행, 폭동, 전쟁)에 대한 소극적 평화(물리적 폭력의 부재)뿐만이 아니라 간접적 폭력(구조적 폭력과 같은 가난, 굶주림, 차별 등)에 대응하는 적극적 평화(구조적 폭력의 부재) 또한 다룹니다. 폭력이 구조화된다는 것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판단조차 못하게 한다는 의미합니다.(ex. 위 글에서 수백만명의 유대인을 처형한 나치 장교 아이히만 사례)

 물리적이고 남성적인 힘, 즉 주류의 권력이 기존의 사회를 구성해왔다면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힘이 평화를 만드는 힘일 것입니다(p29) [↑](#footnote-ref-2)
3. 감정과 자유를 내면으로부터 억누르는 마음속의 경찰관들. ‘말해도 될까’의 걱정-틀리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무시당하면? – 같은 정답/오답의 강박증들이 바로 ‘마음속의 경찰관’들입니다. 이는 사회의 억압적 구조가 내면화 된 것(p27) [↑](#footnote-ref-3)